



人間勝利 國際的 發明人

韓國電力公社 洪 允 和씨



〈洪 允 和 씨〉

말단 機能職 社員에서 世界的인 發明人으로 浮上, 韓電 研修院 교수로 일하고 있는 洪允和씨. 洪씨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人間勝利的 모델이다.

洪씨의 發明品 50여건은 국내 유수의 공학박사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企業體에서까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國際的으로 인정받은 훌륭한 發明品을 낸 洪씨지만 처음 그를 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發明品을

냈을까?」하고 의심할 정도로 洪安의 평범한 인상이다. 마치 시골 국민학교의 곱상한 선생님처럼 조심스러운 洪씨. 그러나 1年 평균 3건의 發明品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동료간에는 물론 公社 내에서 「에디슨」으로 불리운다. 사실 에디슨이 살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오히려 더 유명한 發明人이 되었을지도 한 洪씨다. 그러나 洪씨는 工業學校의 문앞에도 가보지 않았으며, 학력이라면 인문고 야간부를 다닌 것이 전부다. 이때문에 그의 發明品들은 피땀의 結晶으로 더욱 돋보이고 있다.

洪씨가 機械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韓電의 전신인 南鮮電氣 天安지점에 入社하면서부터. 工業學校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사원이 되지도 못했다. 그러나 남달려 근면 성실하여 쉽게 두각을 나타냈다. 곧이어 임대를 하게 됐고, 軍에서는 通信兵으로 일해 계속 技術계통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1962年 제대와 함께 다시 韓電에 入社했다. 그는 이때부터 밤낮으로 전신주를 오르내리며 보선작업을 했다. 洪씨는 현장에서 보선작업을 하다보니 자신이 절실히 필요성을 느껴 새로운 공구개발에 눈을 떴다.

이때부터 洪씨는 남들이 퇴근하고 난뒤 밤을 낮삼아 창고에서 發明作業과 씨름을 하다시피했다. 각종 기계공구를 찾아 친안시대 공구점과 고물상을 폐품수집상처럼 헤매기도 했다. 또 研究하다가 지쳐 눕기도 했으며 과로로 코피를 쏟은 일도 여러번 있었다.

이러기를 2年. 入社한지 꼭 13年만의 일이다. 洪씨는 자신이 만든 공구를 實驗상태에서 實驗했고, 그 찬란한 成功을 동료들이 축하파티까지 열어 주었다. 저 유명한 「유 확권」이 發明되는 순간이었다.

國際發明展 수상 수회·世界 各 國에서 登錄된 수많은 發明·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정부 표창만으로도 洪씨가 國際的 發明人임이 立證되고 있다. <※>